

국내 산업 전망

요약

철강

1997년 상반기 국내 철강 산업은 내수 위축과 수출 호조로 특징지을 수 있다. 내수는 국내 건설 경기 위축, 수요 산업 부진과 기아 사태 여파로 전년 대비 6.5% 감소했으나, 수출은 국제가 인상과 국내 판매 부진에 의한 수출 여력 확대로 전품목에 걸쳐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8% 증가했다. 한편, 1997년 하반기에는 국내 수요 산업이 회복세로 돌아서고 세계 철강 경기가 계속 호조를 보여 경기 회복이 예상된다. 내수는 재고 조정, 대형 건설 공사 개시에 따른 건설용 수요 증가와 자동차·조선용 수요 회복에 힘입어, 하반기에만 전년 대비 12.3% 증가하여 연간으로는 지난해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의 경우, 냉연 중심의 판재류 설비 증설에 따른 수출 여력 확대와 세계 시장 호조 지속으로 1996년보다 13.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8년에는 내수가 올해보다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한편, 수출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8년 철강 내수는 수요 업체 부도 영향이 남아 있으나, 경기 회복, 건설 등 수요 산업 호조, 생산 능력 확장 등으로 증가율이 상승할 것이다. 수출은 세계 철강 수요

가 3~4% 증가하는 등 활황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공급 여력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속적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냉연 설비 확장에 따른 열연강판 공급 부족, 세계 철강 생산 증대와 미니밀 설비 확장에 따른 국제 고철가 상승은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

1997년 석유화학 경기는 생산 능력이 크게 증가된 가운데 설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다소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국내 경기의 부진에 따른 수요 유관 산업의 생산 활동 부진으로 내수가 부진하였고, 동남아 국가들의 대규모 신증설 설비가 가동되면서 수출 시장의 잠식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1998년 중의 석유화학 생산은 생산 능력의 증대와 가동률의 증대로 인해 물량 기준으로 전년 대비 13.8% 증가된 1,4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는 합섬 원료의 특수가 크게 수그러지면서 전년 대비 10.5% 증가된 1,023만 톤에 그치고, 수출도 생산 능력 증가에 따른 수출 여력의 증대가 크지 않은 데다가 동남아 국가들의 자급체제 구축 혹은 수출국으로의 전환(PE, PP 등 일부 품목)으로 인해 물량 기준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된 522

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1998년에는 증대된 생산량을 적절히 소화할 수 있는 시장 확보 특히 수출 시장의 확보가 국내 업체가 당면할 가장 큰 과제로 예상된다. 따라서 1998년 중에 국내 기업이 취해야 할 전략의 핵심은 수익성 확보와 국제 경쟁력 확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경영 합리화, 사업 집중화 그리고 국내외 업체와의 사업 제휴 및 판매 제휴 등을 활발히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1997년 반도체 산업은 대만과 미국 업체의 공급 증가와 PC 업체의 수요 부진 등으로 16M DRAM의 과잉 공급과 이에 따른 가격 하락이 계속된 해였다. 또한 16M DRAM에서의 수익성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삼성과 NEC를 중심으로 64M DRAM의 출시가 시작되기도 했다. 그러나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되면서 16M와 64M DRAM 모두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하반기에 들어서 수출이 조금씩이나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64M DRAM의 생산 확대 기조가 확립되고 있다. 하반기의 수출 회복으로 올해는 작년의 마이너스 성장보다는 나은 2% 정도의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1998년에는 많은 반도체 관련 기관들이 반도체 시장의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으며,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64M DRAM 시장의 본격 형성으로 올해보다 나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

체 수출도 증가세를 보여 약 12%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64M DRAM에 대한 반도체 업체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내년에도 메모리 시장의 공급 과잉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공작기계

그동안 호경기를 보였던 공작기계 산업 경기는 1997년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내수 위축과 수출 부진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경기 위축의 수준은 더욱 심각했다. 내수 위축은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에 따라 투자 심리의 위축, 설비 투자율의 감소에 따른 것이고, 수출 부진은 엔저 현상의 지속과 국내 업계의 해외 시장 확대 여력의 소진에 기인한 것이다. 1998년 경기는 예년에 비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 투자율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어 내수 시장의 확대가 기대되며, 다소간의 환율 조건 호전과 국내 업계의 가격 경쟁력 회복으로 수출도 다소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의 당면 경영 과제는 당장 악화된 채산성을 정상화시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해제 등에 대비해서 국내 생산 기반의 공고화와 글로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자동차

1997년 국내 자동차 산업은 경기 부진의 지속과 이에 따른 대기업 부도 사태 등으로 내수 및 수출이 정체 내지 둔화 현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내수는 전년 대비 0.4% 증가에 그친 약 165만 대로 전망되고, 수출도 전년 증가율에 비해 대폭 둔화된 8.3%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1998년에는 국내 경기의 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계 경제도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내수 및 수출이 전년에 비해 각각 5.2%, 11.0%가 증가한 173만 2,000대, 145만 4,000대를 기록해 회복 기조를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따라서 향후 경쟁이 더욱 격화될 국내외 시장에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생존·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부품 생산에서부터 폐차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고비용·저효율 부분을 제거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서비스체제 강화를 통한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1997년 신조선 수주는 1993년 이후 4년 만에 호황을 맞이하였다. 이는 세계 전체 발주 물량의 증가와 일본의 수주 의지 감퇴에 기인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수주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우리 조선 업체들의 적극적인 수주 의지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수출은 신규 설비 중설이 일단락됨으로써 1996년보다 증가율이 대

폭 둔화될 전망이다.

1998년 수주는 1997년보다 5.3% 정도 감소한 900만 GT 내외로 전망되고 있다. 충분한 조업 물량을 확보한 우리 조선 업체들이 선별 수주에 들어가고, 일본 조선 업체들이 수주 경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 전체 발주 물량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급격한 수주 감소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수출은 LNG선을 포함하여 선박들의 인도 단가가 개선됨으로써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의 수주 경쟁에서는 생산성이 경쟁력을 판가름하는 최대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조선 업체들은 생산성 향상에 한층 더 노력을 배가시켜나가야 하겠다. 이것이 더 이상 환율 변화에 울고 웃지 않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건설

1997년 국내 건설 수주는 국내 경기 침체의 지속에 따른 민간 수주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정도 증가한 85.5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6년의 23.1% 증가에 비하여 약간 둔화된 것이다. 상반기는 정부의 조기 발주로 공공 수주가 크게 늘어났고, 하반기는 경기 회복 지연으로 민간 수주 부진과 공공 물량 소진으로 수주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1997년은 건설 업체 부도가 크게 늘어났고, 특히 주택 건설 업체들의 부도가 줄어 있었다. 1998년은 정부의 긴축 예산 편성으로 공공 부문 수주는 다소 줄어들지만, 경기 회복

에 따른 설비 투자의 증가, 사회간접자본 민자 유치 확대에 따라 호조세를 유지해 국내 건설 수주는 올해보다는 다소 나아져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한 102조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공공 부문 주도에서 민간의 재원에 의존하는 방식으

〈표 1〉 1998년 주요 산업 전망

			1996		1997(e)		1998(e)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 철강	내수	천 톤	39,387	5.6	40,376	2.5	42,453	5.1
	수출	천 톤	10,347	8.3	11,785	13.9	13,092	11.1
	생산	천 톤	38,903	5.8	42,591	9.4	45,246	6.2
	수입	천 톤	10,831	7.3	9,570	-11.6	10,299	7.6
석유화학	내수	천 톤	8,008	8.9	9,222	15.2	10,222	10.5
	수출	천 톤	3,580	15.9	4,440	24.0	5,217	17.5
	생산	천 톤	10,290	12.0	12,265	19.2	13,999	13.8
	수입	천 톤	1,297	3.4	1,390	7.2	1,449	4.3
√ 반도체	내수	억 원	5,964	26.5	4,501.5	-24.4	4,704.0	4.5
	수출	억 달러	178.4	-19.3	182.21	2.1	204.98	12.5
	생산	억 원	142,670	-4.8	119,418.4	11.9	137,569.9	15.2
	수입	억 달러	105.4	16.1	120.40	14.2	140.87	17.0
√ 공작기계	내수	억 원	20,136	7.3	16,443	-18.3	18,391	11.8
	수출	억 달러	5.1	41.7	4.0	-22.5	4.5	12.5
	생산	억 원	9,753	8.5	8,875	-9.0	9,200	3.7
	수입	억 달러	18.0	9.8	12.6	-30.0	14.6	15.9
√ 자동차	내수	소계	1,644	5.7	1,650	0.4	1,730	4.8
		승용차	1,239	7.8	1,249	0.8	1,297	3.8
		상용차	405	-0.3	401	-1.0	443	8.0
	내수	소계	1,210	23.7	1,310	8.3	1,454	11.0
		승용차	1,056	23.4	1,137	7.7	1,265	11.3
		상용차	154	25.7	173	12.3	189	9.2
합계	천 대	2,854	12.6	2,960	3.7	3,184	7.6	
√ 조선	수주	만 GT	695	-2.6	950	36.7	900	-5.3
	수출	억 달러	65.9	28.0	67.0	1.7	73.0	9.0
	생산	만 GT	780	37.7	790	1.3	810	2.5
√ 건설	민간	조원	41.3	15.9	49.86	20.7	61.3	23.0
		건축	37.3	15.0	45.47	21.9	54.6	20.0
		토목	4	25.2	4.39	9.8	6.7	12.0
	공공	조원	32.5	33.5	36.4	12.0	40.8	11.0
		건축	7.8	9.9	8.0	2.6	8.3	3.8
		토목	24.7	43.1	28.4	14.9	32.5	14.5
		합계	조원	73.7	23.1	86.26	17.0	102.1

로 전환되어갈 것으로 보인다.

철강

1997년 동향과 전망

○ 상반기 내수 부진, 수출 호조

1997년 상반기의 국내 철강 산업 동향은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와 수입 감소, 공급 능력 확대 및 세계 철강 경기 호조로 인한 생산과 수출의 증가로 요약될 수 있다.

철강 총수요는 조강 기준 2,479만 9,000 톤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는데, 이는 수출이 상반기 내내 지속적인 호조를 보여 18.8% 증가한 반면, 내수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6.5% 감소했기 때문이다. 조강류의 경우 국내 건설 경기 위축으로 형강과 철근 등 건설용 강재의 수요 감소로 강재 기준 2.6% 감소했고, 판재류의 경우 수요 산업 부진과 기아 사태 여파로 10.5%나 내수가 줄었다. 수출은 해외 시장에 호조에 따른 국제가 인상과 국내

판매 부진에 의한 수출 여력 확대로 전품목에 걸쳐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강재 기준으로 조강류는 21.1%, 판재류는 16.7% 증가했다.

조강 생산은 상반기 2,066만 2,000 톤으로 반기 실적 최대량을 달성했다. 전로강 생산 실적은 1,231만 8,000 톤으로 전년 대비 5.1%, 전기로강은 834만 4,000 톤으로 6.0% 증가해 전체 조강 생산량은 5.4% 증가했다. 전기로의 경우 업체 보수와 원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80% 미만의 가동률을 보여 생산 진도율이 낮았으나 3/4분기 이후 생산 능력 증가와 보수 완료, 가동률 상승으로 전기로 조강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수입은 내수 부진으로 전년비 27%의 큰 폭으로 감소했다.

○ 1997년 내수 회복세 진입, 수출 호조 지속

1997년 하반기 국내 철강 경기는 국내 수요 산업 회복세, 세계 철강 경기 호조 지속으로 상반기의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기로 진입

〈표 2〉 1997년 상반기 철강재 수급 실적

(단위: 천 톤, %)

	철강재계		조강류		판재류	
	1996	1997년 상반기	1996	1997년 상반기	1996	1997년 상반기
내수	37,583(5.8)	18,286(-6.5)	18,375(6.0)	9,434(-2.6)	18,658(5.8)	8,589(-10.5)
수출	9,455(8.9)	5,063(17.0)	1,339(2.9)	635(21.1)	8,042(6.3)	4,396(16.7)
생산	42,379(7.9)	21,477(1.1)	18,002(10.3)	9,468(4.1)	11,738(-1.0)	11,738(-1.0)
수입	6,865(-7.6)	2,612(-34.3)	1,712(-16.7)	600(-46.2)	5,103(-3.7)	1,988(-29.9)

자료: 한국철강협회.

주: 1) 철강재 실적은 조강류, 판재류, 주단강의 합계임.

2) ()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할 것이 예상된다. 내수는 재고 조정 및 대형 공공 토목 공사와 민자 유치 사업 개시에 따른 건설용 수요 증가와 자동차·조선용 수요 회복에 힘입어 하반기에만 2,168만 톤이 증가하여 연간으로는 지난해보다 3.6% 증가한 4,801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의 경우 국내 공급 능력 증대, 특히 냉연 중심의 판재류 설비 증설에 따른 수출 여력 확대와 세계 철강 시장의 수요 호조와 그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상반기 호조세가 지속되어, 연간 톤으로 1996년보다 1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철강 수요는 1996년의 경우 개도국을 제외하고는 정체 현상을 보였으나, 1997년에는 경기 호조에 따라 철강 수요와 생산이 3% 정도 증가하여 안정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생산은 POSCO의 고로 설비, 전기로 업체의 설비 보수 및 증설이 완료되고 가동률도 향상되는 추세에 있어, 하반기 생산이 13.5% 증가하여 연간으로는 4,259만 톤을 생산 1996년보다 9.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수입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전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겠지만, 냉연용 열연 강판과 고철 등 제강 원료를 중심으로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조강 생산이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POSCO의 미니밀용 수요 증가로 고철 수입이 늘어나 수입 의존도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1998년 전망

○ 1998년 수요 산업 회복과 수출 경기 호조로 철강 경기 회복

1998년에는 금년과 비교해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주요 수요 산업도 다소 호전되는 한편, 세계 철강 시장도 1997년에 이어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강 경기는 금년보다는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내수의 경우 1997년과 비교해 전반적인 경기 회복이 예상되고 건설 경기의 호전, 그리고 자동차, 전자 등 철강 수요 산업의 생산 유지 등으로 금년 2.5%보다 다소 높은 5.1% 증가율을 보이며 수요 규모도 4,245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철강 수출은 냉연 부문의 설비 확대와 엔화 강세, 중국 및 동남아 시장의 수입 지속으로 수출도 안정적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11.1% 증가한 1,309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세계 철강 경기가 1997년에 이어 1998년에도 호조를 나타내어 1998년 전세계 철강 수요는 3.6%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EU 15 개국이 경기 회복으로 6% 증가하여 성장을 주도하고, 중국·동남아 지역도 침체에서 다소 벗어나 철강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다만, 최근 일본과 미국의 시황 하락 조짐과 동남아 지역의 경제 불안은 수출 전망을 흐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내 수요의 둔화로 재고가 늘고 업계의 가격 인상 추진도 난항을 겪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수

(표 3) 1998년 철강 산업 수급 전망(조강 기준)

(단위: 천 톤, %)

	1996	1997(e)			1998(e)
		상반기	하반기	연간	
내수	39,387(5.6)	19,128(-6.5)	21,248(12.3)	40,376(2.5)	42,453(5.1)
수출	10,347(8.3)	5,671(18.8)	6,114(9.7)	11,785(13.9)	13,092(11.1)
생산	38,903(5.8)	20,662(5.4)	21,929(13.5)	42,591(9.4)	45,246(6.2)
수입	10,831(7.3)	4,137(-26.8)	5,433(4.8)	9,570(-11.6)	10,299(7.6)

주: 1) 1997, 98년 수치는 전망치임.

2) ()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요 호조에 도 불구하고 신규 미니밀 설비의 공급 증가로 가격 하락 조짐이 보이고 있다. 또한 동남아 국가에서는 환율 불안과 함께 신설비 가동으로 공급 물량이 늘고 있어 수출 여건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한편, 공급 측면에서 철강 생산은 1997년 하반기 신규 설비의 준공에 따른 생산 능력 증가로 1997년 대비 6.2% 성장한 4,525만 톤을 생산하여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철강 수입은 내수의 회복으로 1997년의 감소세에서 반전되어 1997년 대비 7.6% 정도 증가한 1,030만 톤 가량을 수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냉연 설비와 미니밀 설비 확장으로 원재료인 열연강판과 제강 원료 등 필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현안 및 대응 방안

○ 열연강판 수급 불균형

POSCO의 열연 설비 수리와 미니밀 조업 부진, 한보철강의 정상화 지연, 국제가 상승에 따른 수입 부진 등으로 열연강판의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어 1997년 상반기에만 70만 톤 가량이 부족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차공정용 수요 증가, 그리고 열연 설비 확대를 능가하는 냉연 설비 증장 등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97년 POSCO 광양의 180만 톤 냉연 공장 준공, 1998년 동부제강 130만 톤, 한보철강 150만 톤, 1998년말 현대강관 180만 톤 건설 예정으로 수요는 크게 증가하나, 열연강판 생산 능력은 1997년 포항 1열연 신예화 22만 톤, 1998년 광양 제2미니밀 200만 톤, 광양 열연 증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수급 균형을 위해 수입의 증대와 미니밀 조업 안정화 등을 통한 기존 설비의 생산 확대, 그리고 고급품과 저급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수요 업계의 합리적 태도가 요구된다.

○ 고철가 인상 및 환율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

세계 철강 시장 호조에 따른 생산 증대와 전기로 중심의 설비 증설로 고철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다. 환율 상승과 맞물려 전기로 업체

의 원가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995~99년간 아시아 7,025만 톤, 북미 지역은 미니밀 설비 증설로 1,740만 톤 능력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 가운데 전기로 증가분은 6,025만 톤을 차지하여 국제 고철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전기로 업체가 주 원료인 고철의 30%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고철가 상승은 환율 상승과 더불어 원재료 구득난과 업계의 경영 악화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활한 원재료 확보를 위해 미국, 일본 등에 집중되던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국내 고철 공급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병철)

석유화학

1997년 동향과 전망

○ 설비 가동률 저하

1996년에 비교적 호경기를 보였던 석유화학 경기는 1997년에 생산 능력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설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다소 부진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7년에 석유화학 경기가 부진하였던 배경으로는 국내 경기의 부진에 따른 수요 유관 산업의 생산 활동 부진으로 내수가 부진하였고, 주요 수출선인 동남아 국가들의 대규모 신증설 설비가 가동되면서 수출 시장의 잠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 상반기중 석유화학 제품의 내수는 전반적인 국내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합성 수지와 합성 고무의 내수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6%, 1.5% 증가에 그쳤으나, 합섬 원료에서 특수가 일면서 무려 전년 동기 대비 32.7%가 증가됨에 따라 물량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1%가 증가되었다.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은 1996년 말부터 신증설 설비의 본격 가동으로 수출 여력이 크게 증가되고, 주요 수출선인 중국이 높은 경제 성장 하에 수입 수요 신장세를 유지한 데다가 내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업체들의 수출 확대 노력이 주효하여 전년 동기 대비 28.6%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1997년중 상반기의 생산은 1996년 말부터 신증설된 설비의 본격 가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0%가 증가되었다. 합섬 원료의 생산은 생산 능력의 확대와 함께 특수로 인한 가동률 증대로 무려 47.2%나 급증하였다. 반면, 합성 수지는 설비 신증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내수 및 수출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에 그쳤다.

종합 경기 지표라 할 수 있는 생산 설비의 가동 수준을 보면, 세계적 호황기였던 1994년에 96.4%(3대 제품계)에 이르렀던 설비 가동률이 1996년의 97.6%에서 1997년에는 90.8%로 하락되었다.

○ 올해 생산 증가율 19.2%로 전망

1997년 연간 전체로 보면 하반기 중에 내

수는 합성 수지에서 다소 회복되나 합섬 원료에서 다소 둔화되면서 연간 전체로는 전년 대비 15.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하반기에 합성 수지와 합섬 원료의 수출 증가세는 둔화되면서 연간 전체로는 전년 대비 2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998년 전망

○ 생산 호조 속에 내수와 수출 신장세 둔화

1998년 중의 석유화학 생산은 설비 신증설에 따른 생산 능력의 증대와 가동률의 증대로 인해 물량 기준으로 전년 대비 13.8% 증가된 1,4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998년 중에 생산 가동될 신증설 설비 규모는 합성 수지 88만 톤, 합섬 원료 55만 톤, 합성 고무 2만 2,000 톤 등 총 145만 2,000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 설비의 가동률도 다소간의 내수 신장과 세계 경제 및 주요 수출선의 경제 호조 등을 감안하면 특별한 요인이 발생

되지 않는 한 93% 수준에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998년 중의 석유화학 내수는 지난 1997년의 신장세보다 다소 떨어진 전년 대비 10.5% 증가된 1,02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수요 관련 산업의 생산 활동이 다소간 호전되면서 내수 확대가 기대된다. 그러나 자동차, 전자, 플라스틱 등 수요 산업이 성숙화 단계에 진입하여 내수 증가가 안정적이고 지난 1997년에 나타난 합섬 원료의 특수이 크게 수그러지면서 내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측면에서는 1998년 중에 높은 경제 성장이 전망되는 중국의 수입 수요 지속, 자국내 수요 호조로 인한 선진국 업체들의 유화 제품 수출 여력 감소 등이 수출 호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생산 능력 증가에 따른 수출 여력의 증대가 크지 않은 데다가 동남아 국가들이 생산 능력 증대로 자급체제 구축 혹은 수출국으로의 전환(PE, PP 등 일부 품목)으로 수출 여건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표 4〉 석유화학 수급 실적 및 전망

(단위: 천 톤)

	1996	1997			1998(e)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생산	10,290(12.0)	5,833(22.0)	6,432(16.8)	12,265(19.2)	13,999(13.8)
내수	8,008(8.9)	4,455(17.1)	4,767(13.4)	9,222(15.2)	10,222(10.5)
수출	3,580(15.9)	2,098(28.6)	2,342(20.2)	4,440(24.0)	5,217(17.5)
수입	1,297(3.4)	720(9.9)	677(5.4)	1,390(7.2)	1,449(4.3)

주: 1) 합성 수지에는 LDPE, HDPE, PP, PE, PS, ABS, PVC가 포함. 합섬 원료에는 AN, CPLM, TPA, DMT, EG가 포함. 합성 고무에는 SBR, BR이 포함.

2)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예상된다. 따라서 1998년중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은 물량 기준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된 522만 톤으로 전망된다.

한편, 1998년중 석유화학 수입은 수요 산업의 성숙화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 효과와 국내 생산 기반 확대에 따른 수입 대체 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된 145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응책

○ **국내외 시장, 공급 과잉이 우려**

1994년에 주요 유화 업체의 화재나 트러블로 급격히 호전되었던 세계 석유화학 경기는 1995년 하반기 이후 세계 경제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부진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 중동, 동남아 등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설비 신증설이 세계 경기의 호전에 따른 수요 확대를 능가하면서 세계 시장의 수급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공급 과잉 상태로 전환되어왔기 때문이다. 에틸렌 유도품의 수급 밸런스를 보면, 1995년까지만 해도 100만 톤 이상

의 공급 부족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선이던 아세안은 1998년에 공급 과잉국 혹은 수출국으로 전환되고, 기본적으로 공급 과잉국인 중동과 북미 지역은 공급 과잉 정도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 석유화학 시장의 공급 과잉 상황은 지난 1994년과 같은 대형 생산 업체의 공장 트러블과 같은 특별한 호재가 발생되지 않는 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전문 기관들은 세계 시장의 공급 과잉이 1999년이나 2000년 이후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국내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한 국제 경쟁력의 확보와 시장 지배력을 가지기 위해 꾸준히 설비 투자를 시행해왔고, 특히 1996년 말부터 내수 경기의 부진과는 무관하게 생산 능력을 크게 확대시켜왔다. 국내 생산 능력은 90년대 초의 대규모 설비 증설까지 고려하면 90년대 중에 평균적으로 매년 14.6%씩 증대되어왔다. 반면, 석유화학 내수 시장을 보면 거의 안정적인 신장세를 보이는 성숙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자동차, 전자, 섬유, 플라스틱 등 수요 유관 산업이 생

〈표 5〉 에틸렌 유도품 수급 밸런스(에틸렌 환산)

(단위: 백만 톤)

	아시아							중동	서구	북미
	소계	한국	대만	중국	아세안	인도	일본			
1990	-2.7	-0.4	-0.7	-0.3	-0.5	-0.6	-0.0	1.5	0.4	2.5
1995	-3.7	0.6	-1.3	-2.2	-1.1	-0.4	1.2	2.1	0.3	3.4
1998(e)	-3.1	0.6	-1.7	-2.6	0.5	-0.2	0.9	3.2	0.2	3.9

주: 1) e 는 전망치임.

2) -는 공급 부족을 의미함.

〈표 6〉 국내 석유화학 생산 설비 및 내수 추이

(단위: 천 톤)

	1992	1994	1997	연평균 증가율(%)	
				1994/1992	1997/1994
생산 능력(A)	7,448	8,558	13,545	7.2	16.5
국내 수요(B)	5,606	6,915	9,251	11.1	10.2
(B/A, %)	75.0	81.0	68.0	-	-

산 기반의 정체, 해외 진출 가속화 등으로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이들 산업의 유화 수요가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국내 경기가 구조적인 불황 국면에 빠지면서 내수 시장이 더욱 위축되어 있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GNP 성장률을 크게 웃돌던 유화 제품의 내수 신장세는 1994년 이후 급격히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적으로 증대된 생산력에 비해 이를 소화하는 내수 시장의 기여도가 점차 떨어져왔다. 그만큼 내수 시장을 둘러싼 업체들간의 시장 경쟁이 치열해져왔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생산 능력 대비 내수 비율은 1994년에 18%이던 것이 1997년에 68%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져왔다.

○ 수익성 및 시장 확보 어려움 증대

석유화학 산업은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높은 고정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가동률을 유지해야 하는 속성이 있다. 그러므로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공급 과잉이 발생되면 대부분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세계 시장에서 공급 과잉이 나타난 1995년부터 세계 유화 제품 가격은 급격히 하락되었는데, 최근에는 호황기였던

1995년 초에 비해 2/3 수준으로 하락되어 있다. 합성 수지의 평균 수출 단가(동남아 가격 기준)를 보면, 1995년에 톤당 1,113 달러까지 상승되었던 가격이 1996년에는 전년 대비 19.4%가 하락된 평균 897 달러로 하락하였고, 1997년(1~7월중)에는 더욱 하락하여 톤당 885 달러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가격의 하락은 결국 수출 채산성과 수익성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나아가서는 기업의 경영 기반을 위협하게 된다.

1998년에 국내 업체들이 당면할 핵심 과제는 무엇보다 확대된 생산량의 소화라 할 수 있다. 여기에다 협소한 내수 시장과 수요 관련 산업의 성숙화, 국내 경기의 회복 지연 등을 감안하면 수출 확대가 절실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에도 업체들은 내수 시장의 한계로 수출 확대에 주력해왔고, 그 결과 1992년 이후 연평균 15% 이상 수출이 증가되어왔다. 1998년에 수출 확대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공급 과잉 상태에서 세계 기업이나 국내 업체와의 치열한 시장 경쟁이 불가피하고, 이는 가격 하락과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1998년 중에 국내 기업이 취해야 할 전략의 핵심은 수출 채산

성 및 수익성 확보와 수출 시장의 확보 및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국제 경쟁력 확보라고 할 수 있다.

○ 경영 합리화 전략이 절실

1997년에도 국내 업체들은 이러한 위기감을 인식하고 국제 경쟁력의 확보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설비 투자의 효율화, 불필요한 자산의 처분, 인원 감축 및 비용 긴축, 기업간 제휴 등을 추진해왔다. 1998년 중에도 이러한 대응 노력이 더욱 강화되고 범위가 확대되어야만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격 경쟁력의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품질이나 기술 측면에서 차별화된 기술 개발이나 신공정·신제품 개발을 통한 획기적인 원가 절감 및 고부가가치화 등도 국제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적극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하지만, 이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할 과제이다. 오히려 1998년에는 가격 인하나 원가 절감에 효과가 큰 경영 합리화가 더욱 요구된다. 즉, 혁신적인 비용 절감, 생산성 제고, 조직 개편 및 인력 재배치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납사 공동 저장 시설, 물류 기지 건설 등 국내 업체와의 사업 제휴를 통한 적극적인 비용 절감이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해야 하고, 해외 시장의 개척 및 확대를 위해 국내 기업들과의 해외공동판매망 제휴와 해외 현지 업체와의 판매 제휴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사업 가운데서 경쟁력 약화 내지는 경영 실적이 부진한 분야는 축소 내지 철수하고, 대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거나 성장성이 큰 분야로 사업 구조를 집중하는 사업 집중화 전략도 필요하다. 이때 국내 업체들과의 사업 교환과 합작 투자나 기술 이전을 통한 저가 범용 소재 및 가공 부문의 해외 이전(중국, 동남아) 등을 통한 집중화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박송동)

반도체

1997년 동향과 전망

○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

반도체 산업은 작년에 16M DRAM의 가격 폭락으로 인해 불황의 늪에 빠져든 이후, 올해 들어서도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직까지 메모리 반도체의 주력 제품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16M DRAM 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격 약세는 작년부터 이어진 공급 과잉에 기인하고 있다.

공급 과잉을 타개하기 위해 한일 반도체 업체들을 중심으로 올해 초에 감산 정책이 시도되기도 했지만, 일시적 효과밖에는 나타내지 못하고 말았다. 그 원인으로는 대만과 미국 업체의 공급 확대, 완만한 수요 증대를 들 수 있다. 90년대 이후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한 대만 업체들은 현재 13 개에 달하고 있으

며, 세계 시장의 약 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미 16M DRAM에서는 생산 설비의 대폭 확충을 통해 공급량이 급증하고 있다. 대만 업체들은 대부분 위탁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과거에 PC를 미국 메이커에게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공급하는 전략을 통해 컴퓨터 산업에서 성공한 것을 이어받아, 반도체 부문에서도 같은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대만 업체들은 앞으로도 투자 확대를 통해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지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한편, 공급 과잉의 또 다른 요인으로 등장한 미국의 마이크론社의 경우 칩의 크기를 한일 경쟁 업체보다 작게 축소함으로써 원가를 낮추고, 이것을 통해 낮은 현물 시장 가격 하에서도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업체가 선행 투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반면, 마이크론社는 量産으로 규모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시점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후

발 업체로서의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물론, 한일 업체가 제품의 품질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낮은 가격을 무기로 현물 시장의 공급을 확대하고 있어 반도체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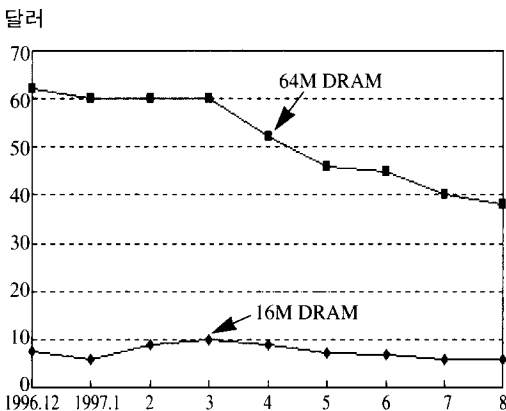
반도체 산업 불황은 공급 부문의 과잉 요인 이외에도 수요 부문의 부진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PC 산업의 부진이 반도체 수요의 둔화를 가져왔다. PC 업체는 1995년 말을 기점으로 펜티엄급 PC를 출하하기 시작했으나, 486 PC의 보급률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고가의 펜티엄급 PC는 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올해에도 세계 PC 수요는 상반기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연간으로 약 1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PC 산업 성장으로는 반도체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세계 반도체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산업은 1997년에도 큰 성장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16M DRAM의 가격 폭락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인 작년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상황으로서, 수출은 2.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64M DRAM 투자 확대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업체는 16M DRAM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그림 1) 16M DRAM과 64M DRAM 가격 추이



극복하기 위해 64M DRAM의 생산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 64M DRAM은 아직까지 고기능 워크스테이션과 서버를 위한 틈새 시장용 성격이 강하지만, 점차 PC 업체의 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일본의 컴퓨터 업체들 사이에서 노트북을 중심으로 64M DRAM의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64M DRAM의 수요 확대를 위한 가격 인하도 이루어지고 있어 점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64M DRAM은 삼성전자와 일본의 NEC社가 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 업체간에 시장 선점 주도권 경쟁이 나타나면서 64M DRAM의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물론, 가격 하락은 16M DRAM에서 64M DRAM으로의 세대 교체를 가져와 먼저 생산을 시작한 업체에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64M DRAM의 시장 형성 가격이 너무 낮게 형성됨으로써 투자비 회수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64M DRAM 가격은 올해 들어서면서 크게 하락하기 시작해 현재는 40 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7〉 우리나라의 64M DRAM 수출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1996. 4/4	1997. 1	2	3	4	5	6	7
170	63	79	79	95	112	150	170

자료: 통상산업부.

국내 업체의 경우 이러한 가격 하락에 대응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속 제품에 주력하면서 수출 향상을 통한 원가 절감을 추구하고 있다. 즉, 생산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4/4분기부터 싱크로너스 DRAM이나 램버스 DRAM 등 고속 DRAM의 비중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경향은 컴퓨터의 그래픽 및 동영상 처리가 진전되면서 처리 속도가 빠른 고속 DRAM의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64M DRAM은 1996년 4/4분기 동안에 1억 7,000만 달러를 수출한 이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7월에는 1억 7,000만 달러 수출액을 보이고 있다.

〈표 8〉 주요 반도체 업체의 월별 64M DRAM 생산량

(단위: 만 개)

업체명	1997년 6월말	1997년말(계획)
삼성전자	170	350
NEC	150	300
미쓰비시전기	100	200
도시바	100	200
LG반도체	30	200
히타치	30	200
현대전자	15	150
후지쓰	10	200
IBM	10	25
오키전기	5	50
TI	3	25
지멘스	3	15
마이크론	3	30
마쓰시타	-	10

자료: 일본 경제 신문 및 국내 발표 자료.

1998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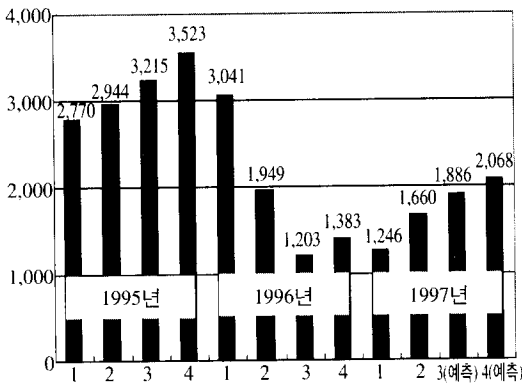
○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 기관들은 향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수급이 안정되면서 가격도 상승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 규모가 올해에는 4.6% 증가하고, 1998년부터는 20%대의 고성장시대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시장 조사 기관인 데이터퀘스트에서는 올해 반도체 매출액이 12.1% 증가하고, 1998년에는 17.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 반도체 시장의 회복 전망을 내용 상으로 보면, 비메모리 제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 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메모리 부문의 경우는 공급 과잉으로 올해까지는 정체 상태를 보이다가 1998년 이후부

〈그림 2〉 세계 DRAM 매출액 추이

(백만 달러)



자료: 니케이 마켓 액세스.

터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 64M DRAM 수요 형성, 공급 과잉 가능성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1998년에 64M DRAM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반도체의 세대 교체는 비트당 가격이 같아지는 '가격 비트크로스'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16M DRAM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64M DRAM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16M DRAM은 대만과 미국 업체의 생산 증대로 인해 공급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돼 가격이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16M DRAM은 현물 시장에서 5~6 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 가격이 유지된다면 가격 비트크로스 시점의 64M DRAM 가격은 약 25 달러 수준일 것으로 추산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격은 생산 업체로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후발 업체와 대만 업체들도 64M DRAM에 대한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64M DRAM에서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국내 업체들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 수율 향상을 통한 원가 절감이 시급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 1998년 수출은 올해보다 회복세

1998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16M

〈표 9〉 1998년 반도체 산업 전망

	1996	1997			1998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증가율
수출(억 달러)	178.43(-19.3)	81.2(-21.2)	101.01(35.8)	182.21(2.1)	204.98	12.5
수입(억 달러)	105.44(16.1)	61.7(24.8)	58.69(25.0)	120.40(14.2)	140.87	17.0
생산(억 원)	106,696.25(-4.8)	51,593.7(-13.3)	67,824.7(43.7)	119,418.4(11.9)	137,569.9	15.2
내수(억 원)	5,959.68(26.5)	2,137.4(-36.1)	2,364.1(-9.6)	4,501.5(-24.4)	4,704.0	4.5

주: 1) 1997년은 추정치, 1998년은 전망치임.

2) () 내와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임.

DRAM에서 64M DRAM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올해보다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64M DRAM의 경우 국내 업체들이 메모리 분야의 기술력 확보, 선발 투자의 이점 등으로 생산 측면에서 앞서가고 있다. 따라서 64M DRAM의 수요 확대가 수출 증가로 이어져 1998년에는 수출 증가율이 12.5% 정도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반도체의 세대 교체는 필연적으로 가격 하락을 동반하기 때문에, 64M DRAM도 수요의 확대를 위한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이러한 수출액 증가가 반도체 업체의 수익성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경쟁력의 핵심인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에서 결정된다. 한 장의 웨이퍼에서 얻는 칩의 개수 차이는 원가에 직결되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서도 높은 수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율을 높이는 전략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물 시장보다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요도 안정적인 고정 거래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쟁 업체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이 보장되어야 한다. 결국, 기술력 차이가 개별 기업의 수익성 차이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신광철)

공작기계

1997년 동향과 전망

○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이 동시에 진행된 1997년 경기

국내 공작기계 산업은 1993년을 전후로 급격한 성장세를 거듭했다. 1996년도 내수는 1993~96년의 3년 동안 약 2배 증가하여 2조 원을 넘어섰고, 생산량도 동기간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수출은 1993년에 1.2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1996년에는 5.1억 달러로 4배 이상 성장했다. 아울러 수입도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내수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급격한 신장세는 1994년과 199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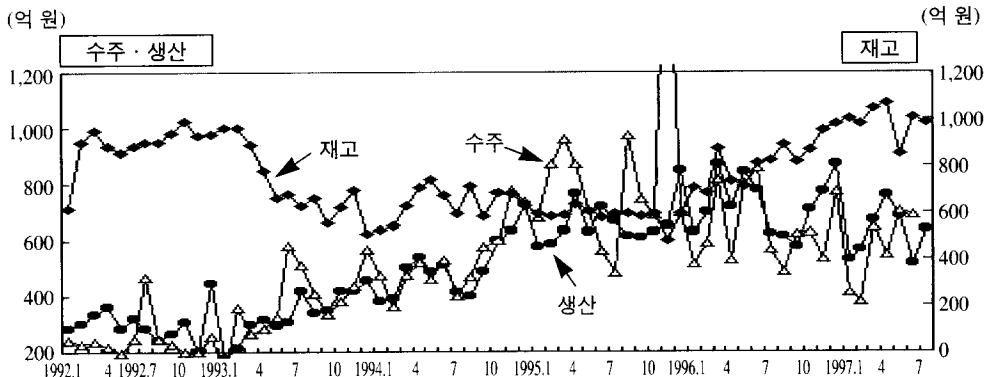
의 왕성한 설비 투자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런데 공작기계 경기는 국내 경기가 정점에 도달했던 1995년 하반기부터 위축되기 시작했다. 수주는 하락하고 재고는 높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1996년에는 그간 수출 경기를 떠받쳐주고 있던 엔고가 엔저로 바뀔에 따라 수출 신장세가 한풀 꺾이면서 경기 위축을 가속화시켰다. 이런 추세는 1997년에 들어서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높은 재고 수준은 불황의 징후를 잘 말해주고 있다. 공작기계 재고는 경기가 최저점이었던 1992년 10월에 987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기록은 3년 3개월만인 1997년 1월에 1,001억 원으로 갱신되었고, 4월에 1,065억 원으로 또 다시 갱신되었다. 불황의 수준이 이전의 경기 순환기 때보다 훨씬 심각함을 말해주고 있다(<그림 3> 참조).

이렇게 높은 수준의 재고를 기록한 것은 생

산된 제품이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내수와 수출 부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공작기계 경기 위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내수 위축의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설비 투자율의 감소에 있다. 통산부가 200대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설비 투자 증가율은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0.7%가 감소했다. 이것은 1993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수출 부진도 산업 경기의 위축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이 특별히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년 동안 급속한 성장을 보여온 수출은 주춤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이래로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국내 기업의 마케팅 및 A/S 여력이 소진되면서 해외 시장 확대가 조정기에 접어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림 3> 공작기계(금속공작기계)의 수주·생산 그리고 재고 추이



주: 금속공작기계 기준임.

○ 하반기 경기 더욱 나빠질 전망

하반기의 경기는 상반기보다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기업의 하반기 설비 투자 계획 조사에 따르면, 하반기 설비 투자는 작년 동기보다 7.0% 감소가 예상되어 연간 기준으로 -4.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준은 연초의 예상치인 -2.1%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기아 부도 사태의 장기화, 금융 불안의 가중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더디게 된 것은 설비 투자의 위축과 함께 공작기계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재고누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중공업의 노사분규 발생, 부도 여파에 휩싸인 기아중공업 등으로 정상적인 조업 수준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수출 시장 여건은 여전히 나쁘지 않고 일부 업체들은 신제품 개발과 국제 전시회의 의욕적인 참여로 수주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작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는 105 엔대 수준 이하까지 엔화 가치가 떨어질 것같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7년 내수와 수입은 1996년에 비해 각각 18.3%, 30% 하락한 수준에 머물 것이며, 생산과 수출도 9.0, 22.5% 하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8년 전망

○ 설비 투자 증가세로 회복 전망

1998년 공작기계 산업 경기는 회복세로 반

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국내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이다. 신 정부가 들어서고 투자 심리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설비 투자가 1997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 연구원은 1998년 설비 투자 증가율을 4.5~4.9%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1997년 설비 투자율 전망치 -2.5%(통산부 -4.2%)보다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은 아니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될 것이라는 점은 회복세로의 전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특히, 공작기계 산업의 대표적인 수요 산업인 자동차 시장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 내수 시장 여건은 1996년 수준을 약간 웃도는 11% 가량의 신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이 증가율의 상당액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 가치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실질 증가율은 이보다 낮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 수출은 1997년 수준을 약간 웃돌 듯

수출 여건은 크게 호전될 것같지 않으나 업계의 원가 절감 노력의 가시화, 신제품 개발과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4억 5,000만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가격 경쟁력의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는 엔/달러 환율이 올해의 연평균 118 엔대보다 다소 낮은 115 엔대로 전망되어 수출 여건은 다소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경쟁력 수준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100~105 엔대 수준을 크게 밑돌기 때문에 큰 폭의 신장세는 난망하다.

〈표 10〉 1998년 공작기계 산업 전망

	1993	1996	1997			1998
			상반기	하반기	연간	
내수(억 원)	10,249(-15.1)	20,136(7.3)	8,792(-0.4)	7,651(-33.8)	16,443(-18.3)	18,391(11.8)
수출(억 달러)	1.2(0.5)	5.1(41.7)	1.6(-14.7)	2.4(0.4)	4.0(-22.5)	4.5(12.5)
생산(억 원)	4,712(4.7)	9,753(8.5)	4,304(-14.7)	4,571(-3.0)	8,875(-9.0)	9,200(3.7)
수입(억 달러)	8.1(-25.6)	18.0(9.8)	6.7(-12.2)	5.9(-45.4)	12.6(-30.0)	14.6(15.9)

자료: 생산은 한국공작기계협회, 수출입은 KOTIS LINE의 MTI 분류 기준임.

주: 1) 1997년 하반기 및 연간은 추정치이고 1998년은 전망치임.

2) () 내는 전년 동기비 증감률(%)임.

3) 원/달러 연평균 환율은 1995년 774.7 원, 1996년 804.9 원, 1997년 880 원(추정치), 1998년 910 원(전망치)임.

내수와 수출 시장의 회복으로 생산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재고 조정이 마무리될 하반기 이후부터 생산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3.7% 수준의 낮은 신장세에 머무를 전망이다. 내수 증가와 수입 다변화 품목의 추가 해제로 인해 수입 증가폭도 증가할 전망이다. 1997년에 비해 약 16%의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대응 방안

○ 채산성 확보가 중요한 경영 과제

1997년에 내수 수출 동시 부진으로 인해 국내 업계 재고 누증은 매우 높은 수준에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채산성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국내 업계간 설비 투자 경쟁으로 내수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가 엔고에서 엔저로 바뀐에 따라 수출 시장에서 일본세에 밀려 생산 물량을 소화하지 못했으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재고 누증으로 조업 단축까지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내년에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나빠진 채산성이 단기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단기내에 경쟁력 향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인 경쟁 변수인 엔/달러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업계의 채산성은 크게 호전될 것같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업계에게 국내외 경쟁 여건은 내년도 이후에 더욱 도전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근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각종 국제 공작기계 전시회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공작기계 산업에서 기술 혁신과 제품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가령, 제품 및 수요자의 컨셉은 고속화·복화화·오픈화로 진전되면서 신기술의 도입과 신제품 개발 움직임이 선진 업계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고 있다. 또한 엔/달러 환율이 큰 변화가 없는 한, 2~3년간 호황기를 맞았던 미일 업계의 채산성 호전으로 더욱 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것임에 따라, 우리 업계와 같이 채산성이

좋지 않은 개도국 업계로서는 더욱 힘든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업계에게는 2000년부터 해제될 수입선 다변화제도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다. WTO체제와 OECD 가입으로 그동안 사실 상의 대일 수입 규제를 해온 수입선 다변화제도가 머지 않은 1999년에 완전히 폐지되어 국내 업계에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채산성 악화로 자신감을 잃고 있는 국내 업계는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폐지에 앞서 산업 기반의 공고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생산 기반의 공고화, 글로벌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기

1998년 경기가 비록 회복기를 맞을 것이나 업계에게 예상되는 경쟁 여건은 그다지 좋지 않다. 따라서 1998년도를 단순히 양적 확대로 삼을 것이 아니라 경쟁력 강화의 모색기로 활용하려는 사업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마케팅력 제고와 A/S 향상을 기하되, 장기적으로 가격 및 품질에서 획기적인 경쟁력을 보유하지 않고서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향후에는 생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채산성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공격적인 매출 확대보다는 실력에 기반을 둔 수익성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경기 회복세를 대비하고 수출 시장의 공략을 위해 제품 성능 향상과 가격 경쟁력 향상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점차 치열해진 경쟁 여건 하에서 3년 앞으로 다가온 수입선 다변화 해체에 임박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장기 비전에 기초한 국내 생산 기반의 공고화와 적극적인 글로벌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류재현)

자동차

1997년 동향과 전망

○ 상반기: 내수 감소, 수출 둔화

1997년 상반기중 국내 자동차 산업은 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1.3%가 감소한 72만 5,000 대를 기록하였고, 수출은 전년 동기의 증가율 18.9%보다 크게 둔화된 11.7% 증가에 그쳤다. 내수가 이처럼 감소율을 나타낸 것은 경기 부진 여파로 대기업의 부도 사태가 겹치면서 수요 감퇴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수출은 내수 부진 극복을 위한 업체들의 수출 증대 노력으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크게 둔화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산업은 내수 부진 및 수출 둔화와 함께 경기 부진 지속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내수는 승용차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2.4%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는 경기 부진에 따른 대체 수요의 지연, 자동차세 인상, 유류가 인상, 혼잡 통행료 징수 등 자동차 수요 억제 요인 등이 겹치면서 수요가 감소한 데 기인한 것이다. 상용차의 경우도 경기 침체 여파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가 감소하였다.

〈표 11〉 1997년 상반기 자동차 산업의 현황

(단위: 천 대)

		1996년 상반기	1997년 상반기
내수	소계	817(10.3)	725(-11.3)
	승용차	614(17.2)	538(-12.4)
	상용차	203(-6.5)	187(-7.9)
수출	소계	572(18.9)	639(11.7)
	승용차	503(22.1)	562(11.7)
	상용차	69(0.0)	77(11.6)
계		1,389(13.7)	1,364(-1.8)

자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 통계 월보」, 각호.

주: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수출은 승용차의 경우, 전년 동기의 증가율 22.1%에 비해 절반 수준인 11.7% 증가율을 나타내는 데 그쳤다. 금년 4월까지 지속된 엔저 현상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 등 수출 여건이 악화되는 데도, 두자리수 증가세를 유지한 것은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적극적인 수출 증대 노력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채산성 악화

1997년 들어서면서 내수 시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상반기중 내수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1.3%가 감소하였으며, 승용차는 12.4%나 감소하였다. 이러한 내수 침체는 연초의 노동법 파동과 경기 부진에 따른 대기업의 부도 사태 등이 겹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자동차 업체들은 내수 부진에 따른 재고 누증을 해소하기 위해 무이자 할부 판매를 실시하였고, 새로운 판매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업체들의 판매 전략은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1997년 상반기중 주요 상장 자동차 업체의 요약 손익 계산서를 살펴보면, 현대자동차의 경우 영업 이익 및 영업외 수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540억 원, 100억 원이 감소한 반면, 영업외 비용은 약 1,000억 원이 증가하여 경상 이익이 전년 동기의 1,912억 원에서 282억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기아자동차의 경우 영업 이익은 전년 동기에 비해 약 260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영업외 비용이 전년 동기에 비해 약 579억 원이나 증가해 경상 이익의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순이익은 45.4%가 감소하였고, 매출액 대비 경상 이익률도 전년 동기에 비해 대폭 악화된 0.6%를 기록했다. 기아자동차의 순이익은 적자폭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매출액 대비 경상 이익률도 -1.3%를 기록하였다.

대기업의 부도 사태가 발생한 상태에서 업체들의 재무 구조 또한 악화되고 있으며, 국내외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 자동차 세계 문제 대두

1997년 들어 노동법 파동과 함께 경기 부진 지속에 따른 대기업 부도 사태 등이 야기되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은 1996년보다 더욱 위축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견실한 성장세를 보여왔던 내수가 상반기중 감소세로 반전되면서

〈표 12〉 현대·기아자동차의 주요 채산성 지표

		매출액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매출액 대비 경상 이익률
현대자동차	1996년 상	9.8	-42.3	3.4
	1997년 상	-2.5	-45.4	0.6
기아자동차	1996년 상	11.1	적자 전환	-0.3
	1997년 상	11.8	적자폭 확대	-1.3

자료: 현대증권(1997. 가을), 「상장 회사 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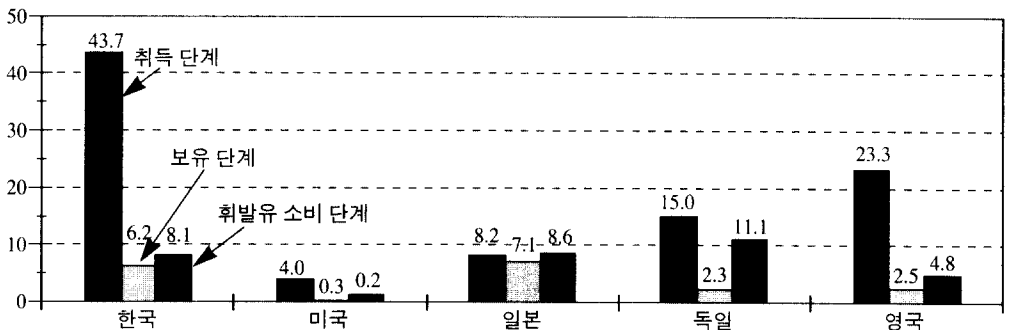
자동차 수요 억제 요인의 하나인 자동차 세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즉,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세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되어 있어 내수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세제는 구입, 등록, 소유, 운행 등 쏠단계에 걸쳐 모두 14 종류(도시철도공채 매입 포함)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세와 주요 선진국의 자동차세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

에 비해 자동차세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취득 단계에서의 세액은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 취득 단계에서의 세액은 각각 4.0, 8.2, 15.0이나, 우리나라는 43.7을 나타내 미국에 비해서는 무려 10 배를 넘어서고 있다. 보유 단계에서도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도 자동차대중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금년에 이미 자동차 1,000만

〈그림 4〉 주요국 자동차 관련 단계별 세액 비교(1995)



자료: 현대자동차(1996), 「1996 자동차 산업」.

- 주: 1) 자동차 세전 가격(500만 원, 1,500 cc), 자동차 구입 후 1년 동안 세액 비교.
- 2) 한국 취득 단계의 공채 매입액은 울릉(1,000~1,500 cc), 지하철 지역 적용.
- 3) 환율은 1995년 12월말, 휘발유 가격은 1995년 2월 기준.
- 4) 각국의 세전 가격을 100으로 하였을 때의 세액 비교표.

대시대를 맞이하였고, 자동차가 더 이상 생활의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국내 자동차 산업도 저성장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타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의 성장 지속은 국가 경제 차원에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자동차 세제의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1997년 전망: 내수 0.4% 증가, 수출 8.3% 증가

1997년 국내 자동차 산업의 내수는 전년 대비 0.4% 증가에 그친 약 165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승용차의 경우, 경기 부진 및 각종 수요 억제 정책으로 수요 감퇴가 예상되나 업체들의 새로운 판매 방식 도입 등으로 0.8%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고, 상용차는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1.0%의 감소율을 보일

〈표 13〉 1997년 내수 및 수출 전망

(단위: 천 대)

		1996	1997(e)		
			상반기	하반기	연간
내수	소계	1,644(5.7)	725(-11.3)	925(11.9)	1,650(0.4)
	승용차	1,239(7.8)	538(-12.4)	711(13.8)	1,249(0.8)
	상용차	405(-0.3)	187(-7.9)	214(5.9)	401(-1.0)
수출	소계	1,210(23.7)	639(11.7)	671(5.2)	1,310(8.3)
	승용차	1,056(23.4)	562(11.7)	575(3.8)	1,137(7.7)
	상용차	154(25.7)	77(11.6)	96(14.3)	173(12.3)
합계		2,854(12.6)	1,364(-1.8)	1,596(8.9)	2,960(3.7)

자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 통계 월보」, 각호.

주: 수출에서 KD는 제외,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997년은 추정치임.

전망이다.

수출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131만 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내수 부진 극복을 위한 수출 확대 노력으로 중남미 지역, 동구권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년 승용차 및 상용차 수출 증가율은 전년보다 대폭 둔화된 7.7%, 12.3%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선진 메이커들의 저가 소형차 개발에 따른 주력 상품에서의 경쟁 심화와 함께 기아 사태로 인한 수출 부진이 겹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선진국 시장으로의 수출이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고, 수출 다변화도 한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1998년 전망

○ 내수 및 수출 5.2%, 11.0% 증가

1998년 자동차 총판매 대수는 약 319만 대에 이르러 1997년보다 7.7% 증가할 전망이다. 내수는 전년 대비 약 5.2%가 증가한 173

〈표 14〉 1998년 자동차 산업 전망

(단위: 천 대)

		1997(e)		1998(e)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내수	소계	1,650	0.4	1,735	5.2
	승용차	1,249	0.8	1,312	5.0
	상용차	401	-1.0	423	5.5
수출	소계	1,310	8.3	1,454	11.0
	승용차	1,137	7.7	1,265	11.3
	상용차	173	12.3	189	9.2
합계		2,960	3.7	3,189	7.7

주: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전망치임.

만 5,000여 대로 전망된다. 이는 경기 회복 가 시화에 따른 수요 회복, 신차 출시 및 신규 진입 효과, 판매 방법의 다양화 등 업체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강화 등으로 수요 회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승용차의 경우 전년보다 5.0%가 증가한 131만 2,000여 대로 예상되며, 상용차의 경우 5.5% 증가한 42만 3,000여 대로 전망된다.

수출은 증가세가 1997년에 이어 둔화될 것이나 전년 대비 11.0%의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이다. 이는 주요 수출 시장의 경제 성장 지속 및 신차 투입 효과, 엔화 강세 전망에 따른 수출 가격 경쟁력 회복 등에 따라 수출 여건이 1997년보다는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승용차 수출은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한 126만 5,000 대로 예상되며, 상용차 수출은 9.2% 증가한 18만 9,000 대로 전망된다.

대응책

○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 격화

1998년 국내외 자동차 시장은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시장에서는 삼성자동차의 신규 진입과 저성장시대로의 진입 등 시장 쟁탈을 위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선진 자동차 업체들의 직판 체제 구축, 한미 자동차 통상 마찰의 심화 등 수입 자동차 내수 판매도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시장은 엔화 강세와 함께 주요 수출 시장의 경제 성장 지속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선진 자동차 업체들의 저가 소형차 개발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의 주력 차종에서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수출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 경쟁력 강화가 최우선

경쟁이 더욱 격화될 국내외 시장에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생존·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뿐이라고 할 수 있다. 부품 생산에서부터 폐차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고비용·저효율 부분을 제거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업체들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주요 전략으로, 내수 시장에서는 틈새 시장 공략을 위한 신차 개발로 신규 수요를 창출해내야 하고, 서비스체제 강화를 통한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해외 시장에서도 신차 개발 기간 단축, 유연생산체제 구축, 부품의 글로벌 소싱의 확대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윤창호)

조선

1997년 동향과 전망

○ 신조선 수주의 호황

1997년 8월까지 신조선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1.5% 증가한 676.3만 GT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탱커를 중심으로 한 발주 물량 증가와 우리 조선

업체들의 적극적인 수주 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0만 GT 이상을 수주하여 2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한 일본의 수주 의지 감퇴에도 기인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세계 전체의 신조선 발주량은 1,500만 GT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물량이다. 특히, VLCC를 포함한 탱커가 전체 발주 물량의 6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우리 조선 업체들이 수주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의 선가를 바닥세로 판단한 주요 선주들의 조기 발주 움직임과 우리 조선 업체들의 납기 우위도 수주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무엇보다도 수주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증대된 신설 설비의 일감 부족을 우려한 우리 조선 업체들의 적극적인 수주 의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한 38.4억 달러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선박 건조 물량이 지난해보다 10% 정도 감소했기 때문인데, 작년 12월에 조기 건조된 물량과 신설 설비의 가동률 저하에 기인하고 있다.

앞으로의 일감을 나타내는 수주 잔량은 8월말 현재 1,550만 GT로서 전년 동기 대비 32.6%나 증가하였다. 이는 2년치 일감인

1,600만 GT에 거의 육박하고 있어 향후 우리 조선 업체들의 안정적인 조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가의 하락이 두드러져 GT당 선가가 1996년의 1,015 달러에서 올해는 톤당 784 달러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2년간 우리 조선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 연간으로 수주 물량 36.7% 증가할 전망

하반기에는 우리 조선 업체들이 충분한 조업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채산성을 고려한 선별 수주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2000년초 납기 물량을 중심으로 일본 조선 업체들의 적극적인 수주 경쟁 참여가 전망된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수주가 줄어 1997년 전체 수주 물량은 950만 GT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전년보다 36.7%나 증가된 물량으로 사상 최대의 수주를 기록했던 1993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수출은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성격상 생산 증가가 곧바로 수출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1.7% 정도 증가한 67억 달러로 전망된다.

한편, 생산은 하반기에 납기 물량이 많아짐으로써 현재까지의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1996년보다 1.3% 증가한 790만 GT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신규 생산 설비의 본격 가동으로 가동률이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 동형선 건조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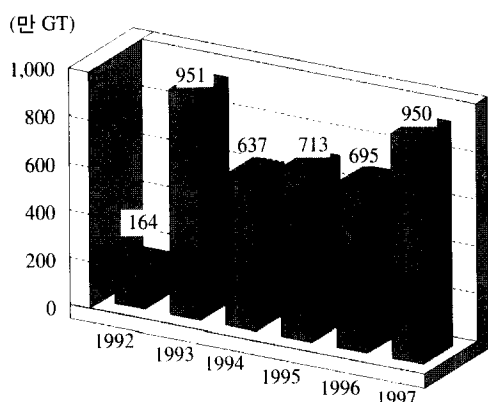
〈표 15〉 연도별 GT당 선가 추이

(단위: 달러/GT)

	1993	1994	1995	1996	1997. 8
선가	771	923	952	1,015	784

주: 연도별 선가는 당해 연도 수주 금액을 수주 물량으로 나눈 값임.

〈그림 5〉 연도별 수주량 추이



자료: 조선공업협회.

주: 1997년은 전망치임.

그러나 신규 설비 증설이 일단락됨으로써 1996년의 생산 증가율 37.7%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1998년 전망

○ 수익성을 고려한 선별 수주로 신조선 수주는 900만 GT 내외로 전망

신조선 수주는 1997년보다 5.3% 정도 감소한 900만 GT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8년에는 일본 조선 업체들이 2000년초

납기 물량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수주 경쟁에 참여할 것인 반면, 2년치 일감을 확보한 우리 조선 업체들은 수익성을 고려한 선별 수주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대된 생산 설비를 고려해볼 때 적정 일감 확보를 위한 최소 수주 목표는 채워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 그리고 내년도 세계 전체 발주 물량이 사상 최대치인 2,800만 GT라는 전망(일본운수성)도 나오고 있어서, 수주가 예전과 같이 급격히 감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일본과의 가격 경쟁력을 살펴보면, 1998년 환율을 910~920 원/달러, 110~115 엔/달러로 예상할 때 올해의 5% 정도 열위에서 대등한 경쟁력으로 호전될 전망이다. 그러나 엔고 시기에 구조 조정을 통하여 달성한 생산성 향상분을 감안하면 아직도 일본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일본이 선박 건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기본 블록의 크기를 대형화하는 등의 노력을 보더라도 경쟁력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든다. 또, 금융·품질·납기 등 비가격 경쟁력에서도 3~5% 정도 열위로 판단되므

〈표 16〉 1998년 조선 전망

	1996	1997(e)			1998(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수주(만 GT)	695(-2.6)	528(177.9)	422(-16.2)	950(36.7)	900(-5.3)
수출(억 달러)	65.9(28.0)	28.6(-16.0)	38.4(20.4)	67.0(1.7)	73.0(9.0)
생산(만 GT)	780(37.7)	324(-16.6)	456(16.6)	790(1.3)	810(2.5)

주: 1) 1997년 및 1998년은 전망치(e)임.

2) () 내의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로, 전체 경쟁력은 5~10% 정도 떨어질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1996년 연말부터 발주가 지속되고 있는 VLCC를 중심으로 볼 때,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의 경쟁력도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1998년의 수주 경쟁은 올해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1997년보다 증가폭이 커져서 9.0% 증가한 73억 달러 내외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톤당 선가가 높았던 1996년도 수주 물량이 1998년에 건조가 이루어져 수출되기 때문이다. 또 1996년 8월에 발주된 LNG선 6 척의 인도도 예정되어 있어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생산은 신설된 생산 설비의 본격적인 가동과 생산성 향상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810만 GT 내외로 전망된다. 조선 산업은 동형선 건조로 인한 숙련도가 생산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조선 업체들의 VLCC 반복 건조에 의한 8~10% 정도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대응책

○ 생산성 향상이 경쟁력 제고의 최우선 목표

1998년은 향후 200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제2 조선 호황기의 서막으로 판단된

다. 그러므로 2000년대의 조선 시장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세계 조선 업체를 양분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술력의 차이가 어느 정도 좁혀진 이후로는 생산성 차이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일본과의 생산성 격차는 우리 조선 업체들이 30% 정도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격차를 메꾸는 노력이 보다 절실해지고 있는 시기로 판단된다.

생산성 향상 요인으로는 숙련도, 건조 설비, 생산 관리 능력 등을 들 수 있다. 숙련도에 있어서는 일본의 선박 누적 생산량이 3억 GT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5,000만 GT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한 격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건조 설비의 경우는 우리 조선 업체들의 설비가 일본의 그것에 비해 보다 최신식이므로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생산 관리 능력은 일본이 과거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자동화 및 CIM화로 우리나라보다 30% 정도 크게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생산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선박 유형별 가공 공수를 보더라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40% 정도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

위에서 살펴본 현실로 볼 때, 향후의 조선 경쟁력을 결정짓는 척도는 생산성이 될 것으

1) 통상산업부·산업연구원(1997. 6), 「벤처마킹을 통한 한국 산업의 대해부」에서 인용.

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배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생산성 향상 방안은 크게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먼저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자동 용접 로봇의 개발, 기초 블록의 대형화, 부품 표준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선박 건조 기간을 점차 단축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선박의 설계·공정 계획·생산 기술의 데이터베이스화, 컴퓨터에 의한 생산(CIM) 방식 도입, 각 조선소의 생산시스템 통합 등을 말한다. 이를 빠른 시일 내에 실용화시켜 생산 관리 측면의 효율성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수주한 선박들의 수익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런 여건 하에서 선박 인도 시점까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 절감에 달려 있다. 과거와 같이 환율 변화에 울고 웃는 요행 상황에서 시급히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희식)

〈표 17〉 선박 유형별 가공 공수 비교

(단위: 만 시간)

	일본	한국	비교
28만 톤급 유조선	38~45	65~75	단일선체구조
28만 톤급 유조선	55~65	85~95	이중선체구조
15만 톤급 유조선	약 30	약 64	단일선체구조

자료: NRI, 한국조선공업협회.

건설

1997년 동향과 전망

○ 상반기 공공 물량 조기 발주

1996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국내 경기의 침체는 당초에는 올 하반기나 늦어도 연말쯤에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전년 말부터 연이은 대기업들의 도산으로 경기 회복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국내 기업의 설비 투자와 사무용 건축 수요 등 민간 수요가 크게 위축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 중에 공공 물량의 발주를 크게 늘렸다. 상반기중 공공 부문 수주는 31.9%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규제해오던 분양가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자율화

〈표 18〉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률

(%)

	주택 가격	전세	토지
1994	-0.2	4.2	-0.6
1995	-0.1	3.5	0.6
1996	1.5	6.5	0.95
1997. 5	2.4	2.3	0.15

자료: 주택은행, 「주택 금융」, 각호.

주: 토지는 1997년 1/4분기까지임.

〈표 19〉 미분양 아파트 현황

(단위: 천 호)구분

구분	1995. 12	1996. 12	1997. 3	1997. 5
전국	152	109	87	84
수도권	35	24	12	13

자료: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90년대 들어와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 있던 부동산 가격이 작년 말부터 상승 조짐을 보이자 상반기중 미분양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수주가 활기를 띠었다. 이에 따라 위축될 것으로 보였던 민간 부문도 예상과 달리 전년 동기 대비 28.4%나 증가했다.

○ 올해 국내 건설 수주는 17% 증가에 그칠 전망

이러한 상반기 중의 호조에 비해 하반기 중에는 수주 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의 경기 회복 지연으로 제조업 설비 투자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민간 수주 부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 부문도 상반기 중조기 발주로 하반기에 발주할 물량이 부족하고, 전년 말에 올해부터의 공공 건설 시장 개방에 대비해 집중 발주했기 때문에, 올해는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덕도 신항만 공사 등 사회간접자본 민자 유치 사업과 ASEM 등 대규모 국제 회의 시설이 하반기에 발주돼 건설 업체들의 숨통을 어느 정도 트이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부문은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둔화되겠으나 15% 정도 수주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997년 국내 건설 수주는 상반기에 30% 높은 증가를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8.3% 정도로 낮아져 연간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17% 정도 증가한 85.5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6년의 23.1% 증가에 비하여 크게 둔화된 것이다.

1998년 전망

○ 경기 회복에 따른 민간 수주 증가로 18.4% 증가

국내 경기는 내년부터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올해의 국내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내년 예산을 긴축 편성해 공공 부문 수주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간 부문은 경기 회복에 따른 설비 투자의 증가, 사회간접자본 민자 유치 확대에 따라 호조세를 유지해, 국내 건설 수주는 올해보다는 다소 나아져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한 102조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의 민간 부문은 전년의 분양가 자율화와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으로 주택 부문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 붐을 이루고 있는 주상 복합 건물의 신축도 도심에서 신도시 지역으로의 확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속된 불황의 여파로 사무실 공실률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가 회복세로 들어서도 사무용 건축 수요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민간 토목 부문은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섬에 따라서 설비 투자가 증가로 돌아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간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3% 정도 증가한 61조 3,000억 원을 이룰 전망이다.

공공 수주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건축 편성해 증가율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12%에 그치고 36조 4,000억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국회의 심의 과정이 남아 있어 최종적으로는 다소 조정이 되겠지만, 당정 협의를 거친 사회간접자본 예산안은 11조 3,000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11.5% 증가에 그쳤다. 이는 올해의 24.4%에 비하면 증가율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주요 내용은 고속도로 사업이 16.3% 정도 증가한 1조 4,194억 원, 국도 건설은 1.6% 증가한 4조 26억 원, 신규로 수도권 광역도로에 700억 원, 지역 간선 철도에 12.4%가 증가한 3,302억 원, 대도시 광역 전철에 18%가 증가한 2,466억 원, 지하철 건설에 23%가 증가한 9,860억 원, 부산, 인천, 목포 등 신항만 개발에 50%가 증가한 2,583억 원, 일반 항만은 7% 정도 감소한 3,764억 원, 인천 국제 공항 건설은 32%가 증가한 4,700억 원 등이다.

특히, 대도시 광역 전철, 지하철, 신항만 개발, 국제 공항 등에서 증가율이 높다. 이로 미

〈표 20〉 주요 사회간접자본 예산

(단위: 억 원, %)

항목	1997	1998	증가율
고속도로	12,205	14,194	16.3
국도	39,396	40,026	1.6
지역 간선 철도	2,938	3,302	12.4
지하철	8,016	9,860	23
신항만 개발	1,722	2,583	50
일반 항만	4,047	3,764	-7
인천 국제 공항	3,561	4,700	32

루어보면 1998년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대도시 대중 교통 부문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 공항 시설 등 대규모 물류 시설 부문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건축 예산 편성으로 공공 건축 부문도 수주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공공 부문의 주택 건설이 활발했지만, 내년에는 민간 부문의 활성화로 공공 부문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응책

○ 건설업 구조 조정 진행

1997년은 고비용 구조로 인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대기업들의 도산이 줄을 이었다. 건설업 부문에서도 구조 조정은 더욱 거세게 일어났다. 건설업의 경우 시장 개방을 맞이하여 국내 건설업 면허 발급 조건을 완화하여 몇년 사이에 건설 업체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런 건설 업체의 급격한 증가에 비하여 건설 수요는 비례하여 늘지 않았고, 더구나 1990년 이후 주택 스톡이 급격히 증가했고, 장기간의 부동산 침체로 늘어난 미분양에 자금이 묶인 건설 업체들의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한보, 기아, 삼미, 진로 등 대기업들의 부도로 인하여 업종 특성상 부채 비율이 높은 건설 업체들의 금융 조달은 더욱 어려워졌다.


올해 8월 말까지 부도난 건설 업체는 747개로 전년 동기 대비 39.6%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서 비교적 규모가 큰 일반 건설 업체들

은 141 개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대형 건설 업체의 하청 공사를 주로 맡는 전문 건설 업체는 660 개사가 도산하여 전년 동기 대비 65.4%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1 년에 한 번 발급하던 건설업 면허를 수시로 발급하고는 있지만, 올해에 면허 발급은 413 건으로 전년의 974 건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올해 부도난 대형 건설 업체들은 주로 과거에 주택 부문에서 명성을 쌓은 건설 업체들이 많았다. 그 원인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와 대기업 부도에 따른 자금 공급의 위축과 미분양에 따른 자금 동결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건설 수요의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사업 구조 전환의 실패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내년에는 정부가 건축 예산을 편성해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공공 부문 주도에서 민간의 재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갈 것으로 보인다.

○ 안정적인 물량 확보 필요

향후에도 건설 시장 개방으로 외국 업체들의 국내 건설 시장 참여가 늘어나고, 건설 산업에서의 주택 부문 비중도 축소될 것으로 보여 건설 산업의 구조 조정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수주 물량의 확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민자 유치 사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민자 유치의 투자 규모를 점차 축소시키고 있다. 1995년 건당 평균 사업비가 8,116억 원이던 것이 1996년에는 7,100억 원 그리고 1997년에는 5,390억 원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민자 유치 사업의 참여 리스크가 줄어들어 민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선택) 

〈표 21〉 1998년 국내 건설 수주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1996	1997			1998(e)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국내	민간	41.3(15.9)	23.36(28.4)	26.5(15.2)	49.86(20.7)	61.3(23)
	건축	37.3(15)	21.2(31.9)	24.27(14.8)	45.47(21.9)	54.6(20)
	토목	4(25.2)	2.16(6)	2.23(15.4)	4.39(9.8)	6.7(12)
	공공	32.5(33.5)	15.7(31.9)	20.7(0.6)	36.4(12)	40.8(11)
	건축	7.8(9.9)	3.7(21.7)	4.3(-6.5)	8(2.6)	8.3(3.8)
	토목	24.7(43.1)	12.0(34.8)	16.4(0.6)	28.4(14.9)	32.5(14.5)
합계	73.7(23.1)	39.1(30)	47.2(8.3)	86.26(17)	102.1(18.4)	

자료: 대한건설협회 실적치.

주: 1) 1997년 하반기 및 연간은 추정치이고, 1998년은 전망치임.

2) () 내는 전년 동기비 증감률(%)임.